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통한 지역 건축자산 발굴·관리

광주시 건축경관과 건축안전센터팀
2025.1.21.

세종시 도시주택국 건축과
2025.2.6.



전일빌딩245



동구 인문학당

출처: 광주시. (2025). 광주시, 우수건축자산 1호
‘전일빌딩245’ 등록, 1월 21일 보도자료.



조치원 문화정원



장옥진 생가

출처: 세종시. (2025). 세종시 조치원 문화정원
‘우수건축자산’ 등록, 2월 6일 보도자료.

광주시, 우수건축자산으로 전일빌딩245 등 4개소 등록

광주시는 전일빌딩245를 필두로 전남대학교 학군단본부, 서강사, 동구 인문학당을 광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였다고 밝혔다. 우수건축자산은 문화재 지정과는 달리 활용 가치에 중점을 둔 진흥 개념의 지원제도다. 소유주가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등록한다.

광주 우수건축자산 제1호로 등록된 전일빌딩245는 1968년 7층 건물로 준공되어 당시 전남일보가 사용하던 건물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기총소사의 흔적이 남아 있는 등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 현재는 도서관과 관광센터, 문화콘텐츠기업 등이 입주하며 시민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2호 전남대학교 학군단본부는 독특한 형태와 재료로 건립돼 1950, 60년대 대학 교육시설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제3호 서강사는 1960년대 사당 건축물로 광주지역의 한옥건축 기술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제4호 동구 인문학당은 동명동에 자리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서양·일본·한국의 건축양식이 혼합돼 1950년대 광주의 건축기술과 다양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광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건축법」 등 일부 규정(건폐율, 조정 면적, 공개공지, 주차장 확보 등)의 완화 적용 등을 받을 수 있다.

세종시, 조치원 문화정원 등 3개소 우수건축자산 등록

세종시가 조치원 문화정원, 조치원 1927아트센터, 장옥진 생가를 세종시 우수건축자산 제1~3호로 등록하였다. 시는 지난해 12월 진행된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들 세 곳을 우수건축자산으로 선정, 등록하였다고 밝혔다.

제1호 우수건축자산에 등록되는 조치원 문화정원은 1935년 정수장으로 사용되다가 2013년 폐쇄된 시설을 근린공원을 통합해 1만 626m² 규모의 문화 정원으로 조성한 사례다. 제2호 조치원 1927아트센터는 한림제지 공장을 재생한 시설로, 1930년대 공장의 전형적인 형태의 목조 트러스 등은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간직하고 있다. 제3호 장옥진 생가는 1905년 건립된 전통가옥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한국미술품의 거장 장옥진 화백의 생가라는 점에서 사회문화적 가치를 높이 평가받았다.

시는 앞으로 제1~3호 우수건축자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 정체성에 기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